

# 서울아트가이드 Seoul Art Guide

2010. 10

- ▣ 도라산역의 벽화
- ▣ 다다이즘 혹은 공멸작전
- ▣ '문화예술인 지위법'은 과연 필요한 법인가?
- ▣ 현대미술 속 아트페어
- ▣ CONTENTS p.22
- ▣ Exhibitions of Editor's Choice p.124

[www.daljin.com](http://www.daljin.com)

## 대전시립미술관

Next Code 9.3~10.17 제1~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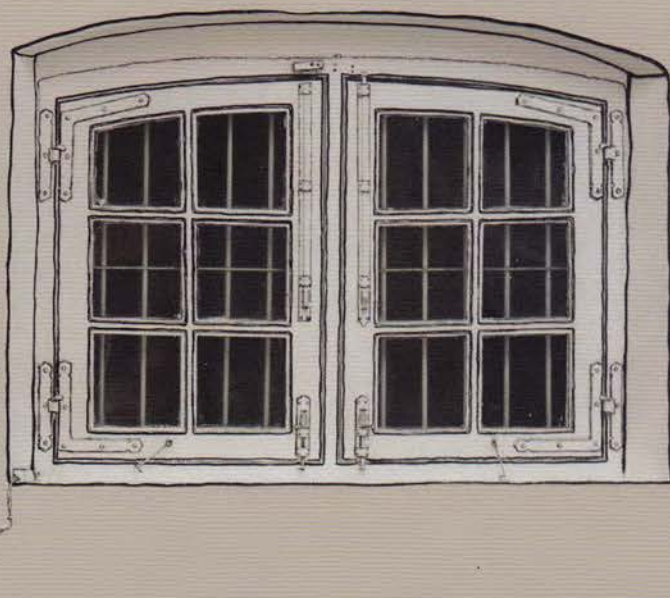
예술가와 가족 9.3~10.17 제3~4전시실

강태성 10.1~10.31 제5전시실

##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Long Live Drawing!2-Spatial Drawing 9.1~11.21

[www.dma.go.kr](http://www.dma.go.kr)



# Exhibition Review

미술평론가가 평가한 9월의 전시



Skyscraper, 2010

**노신경**  
9.8 - 9.13 가나아트스페이스

종이 위의 재봉틀 박음질. 기계적이고 단순한 반복의 리듬. 노신경의 작업에서 우리의 감각을 환기시키는 것은 놀이로부터 오는 쾌감이 다. 그의 작업에서 조형성이나 내용의 깊이보다 먼저 다가오는 감각적 쾌감이란 어린 시절 모래 위에서 고무신을 접어 밀고 다녔던 자동차 놀이가 주는 몰입 같은 것이다. 재봉틀의 빠르고 호흡 가쁜 규칙적인 리듬에 맞춘 길 없는 길을 가는 자유의 몸짓. 지금 현재와 먼 과거가 만나는 영원의 체험이다.



Robert Rhee, Unknown Games Series, 2008-10

**당신과 나의 삶이 이항할때**  
9.10 - 10.10 일민미술관

'당신과 나의 삶이 이항할 때'는 동아미술제 전시기획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큐레이터 황진영의 기획전이다. 전시는 장소의 이동, 문화의 이동, 세대의 이동 등 자아와 타자가 충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다룬다. 이 전시는 문화의 충돌과 교섭 그리고 융화의 과정에서 낯선 공간과 시간의 체험이 가져다주는 혼돈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백균 | 미술평론가 baikgyun@naver.com



Amon's Acid, 2010

**마르코스 노박**  
9.1 - 10.15 공간화랑

'암몬의 산(酸) : 신(神)과 단백질, 장소와 지구로부터'라는 주제를 가진 이 전시는 생명체의 존재근거를 과학적 본질로부터 예술적 실존으로 가시화했다. 가상건축가로도 불리는 미디어 아티스트 노박은 첨단 하이테크보다 익숙한 로우테크를 구사하면서도 동시대 최전선의 이슈를 끌어낸다. 과학과 종교가 화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면, 과학과 예술은 보편과 특수를 공유하면서 통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작자미상, 명부시왕오도 전륜대왕도

**춘추**  
9.1 - 10.31 학교재

20세기 이후 한국의 문화지형은 오랜 문화전통에서 나온 고전과 딱딱딱한 동시대를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는 일이 매우 불편할 정도로 단절과 이식의 길을 달려왔다. 이 전시는 그 불편함을 딛고 고려와 조선의 명작들과 한국의 신작들을 나란히 걸었다. 서로 다른 어법과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클래식과 컨템포러리의 대비를 통해서 기술과 예술, 문자 언어와 시각언어의 차이와 유사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었다.

김준기 | 미술평론가 gimjungki.net



절단된 얼굴, 2010

**권정준**  
9.1 - 9.15 갤러리에퀴드나인

1970년대, 사진을 사진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외부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구분해놓은 것이 MoMA의 사카프스키 사진을 표현 미디어로 하는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작가 19명이 모여서 재미있는 전시를 한다. 세상이 많이 달라진 지금 그의 명쾌한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타이틀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그에게 보내는 오마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사진은 세계를 바라보는 투명한 창인지 동시에 자신을 비춰내는 매체다.



Portrait of Second-hand Clothes No.1, 1994 ©Yuki Onodera

**오노데라 유키**  
9.11 - 12.4 한미사진미술관

이미지들을 중첩시켜서 수수께끼 같은 세계를 출현시키는 그의 작품의 매력은 사진에 대한 상식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기발함과 환상성. 포토샵, 카메라와 렌즈의 변형 등 온갖 반 사진적 방법들을 찾아서 표현에 구사한다. 오히려 독학으로 사진을 시작한 것이 그에게 그런 자유를 주었을 것이다. 일상적인 소재를 찍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종이 위에 출력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진이라기보다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김승곤 | 순천대 교수 kim@iphos.co.kr



르네상스다방 내부

**종로 엘레지**  
8.13 - 10.3 서울역사박물관

사람들은 각자의 추억으로 종로를 기억한다. 나의 종로는 대학 재수생이던 친구를 만나러 종로 2가와 3가를 헤매고 다니던 1970년대 말 즈음에 멈추어 있다. 그 곳을 지키던 가로수와 보도블럭과 상징과 다방들은 내 기억 어딘가에서 출렁거린다. 맘 변한 것처럼 종로가 제아무리 변해버렸다 하여도 나의 종로는 젊은 날의 정다운 기억으로 변함이 없다.



능후관폭도

**능후관 이인상**  
9.14 - 12.5 국립중앙박물관

심심하고 담담한 음식맛이라 하면 너무 격이 낮은 비유일까. 이인상의 그림은 그렇다. 그러면서도 골기가 있고 중심이 있다. 까다로운 추사 김정희조차 이인상의 서체를 이해하면 문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평했을 정도인데 그 경지가 이처럼 깔깔한 듯 심심하다. 하급 관리로 출세의 끝이 정해진 신분이 억울할 법도 하건만 그 지평이 이리도 담할 수 있구나.

김현숙 | 미술평론가 clink33@hanmail.net